

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제80호 2019년 3월 6일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Tel.+82-51-797-4665 Fax.+82-51-797-4659 △총괄:박성준 러시아연구센터장 △감수:길광수 명예연구위원 △편집:김엄지 연구원

주요내용

통계로 보는 북방(p.2)

- 2013년 대비 2018년 항만 물동량 증가율 기준 북극지역이 1위

주요 동향(p.5)

• 동부(p.5)

- 러시아 항공운송 보조금 확대
- 러 극동개발부, 극동북극개발부로 부처명칭 변경

• 중부(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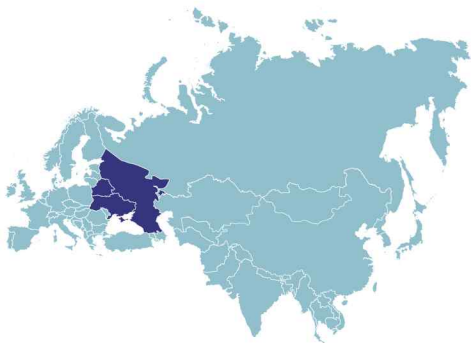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지역 개발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 조지아 등 4개국, 새로운 카스피해-흑해 운송회랑 건설 합의

• 서부(p.13)

- 알리바바, 글로벌 시장 확대 위해 러 우정당국과 협력 추진
- 러시아, 물류망 현대화에 대규모 예산 투입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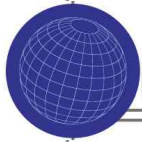
주요통계(p.18)

- 2018/2019 러시아 수역별 수산자원 생산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서부권역 : 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 중부권역 : 중앙아시아, 몽골 / 동부권역 :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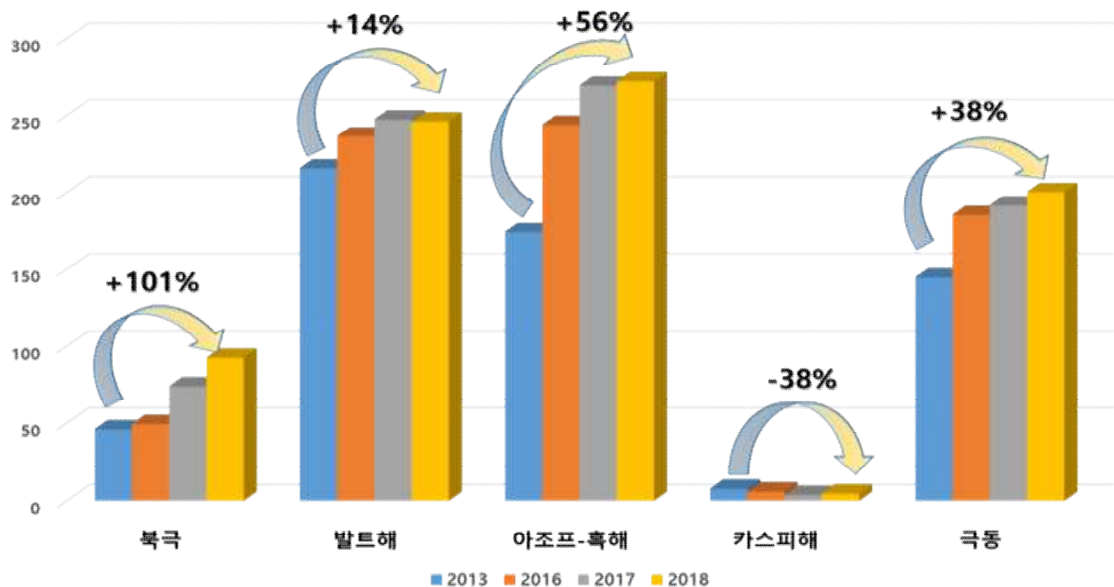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북방

■ 2013년 대비 2018년 항만 물동량 증가율 기준 북극지역이 1위

수역별 항만 물동량 변화 추이 (2013~2018)

(단위: 백만 톤)

자료: <https://periskop.livejournal.com/1935853.html>(검색일: 2019년 3월 6일)

- 2013년 대비 2018년 항만 물동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역은 북극지역¹⁾임(+101%)
 - 무르만스크 항만이 2013년 3,140만 톤에서 6,070만 톤으로 증가해 북극지역 항만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음(+93%)
 - 사베타 항만은 2017년부터 석유·가스를 수출하면서,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다만 아르한겔스크는 2013년 440만 톤에서 2018년 280만 톤으로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1) 북극지역 항만: 무르만스크, 바란데이, 사베타, 아르한겔스크, 두딘카



- 아조프-흑해 수역 항만²⁾ 물동량은 56% 증가했으며, 특히 카프카즈 항만 물동량은 2013년 790만 톤에서 2018년 3,010만 톤으로 큰 증가폭을 보임
- 2013년 대비 2018년 발트해³⁾ 물동량은 미미한 증가세를 보임(+14%)
 - 2013년 대비 2018년 물동량 증가율 기준으로 1위는 우스르 루가항만(+57%)이 차지했고, 2위는 빅소츠크항만(+16%)이며, 칼리닌그라드(+3%), 상트 페테르부르크 항만(+2%)이 각각 3, 4위를 차지함
 - 2013년 프리모르스크 항만 물동량은 6,380만 톤, 2018년에는 5,350만 톤을 기록하며 16% 감소했음
- 1억 4,480만 톤이었던 2013년 극동지역 항만⁴⁾ 물동량은 2018년 2억 50만 톤으로 38% 증가했음
 - 특히 데-카스트리 항만 물동량은 타 항만 물동량에 비해 비교적 물동량이 적었으나,⁵⁾ 증가율은 80%로 가장 높았음
- 반면 카스피해⁶⁾ 수역 항만 물동량은 2013년 780만 톤에서 감소해 2018년 480만 톤으로 38% 감소함
 - 다만, ① 카스피해 연안 5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이란)이 고질적인 문제였던 영해 설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 ② 러시아, 이란, 인도 3국이 기존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카스피해-내륙 운송루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 등으로 역내 항만 물동량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2) 아조프-흑해 수역 항만: 노보로시이스크, 투압세, 로스토프 나 도누, 타만, 아조프, 카프카즈, 케르치

3) 발트해 수역 항만: 프리모르스크, 우스르 루가, 상트 페테르부르크, 빅소츠크, 칼리닌그라드

4) 극동지역 항만: 보스토치니, 바니노, 나호드카, 프리고로드노예, 블라디보스톡, 데-카스트리, 포시에트

5) 2018년 기준 보스토치니 물동량은 6,970만 톤, 바니노는 2,950만 톤, 나호드카는 2,430만 톤, 블라디보스톡은 2,120만 톤, 프리고로드노예는 1,700만 톤, 데 카스트리는 1,260만 톤, 포시에트는 710만 톤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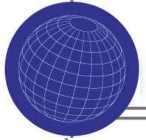
6) 카스피해 수역 항만: 마하치칼라, 아스트라한



■ 참고자료 : <https://periskop.livejournal.com/1935853.html>(검색일: 2019년 3월 6일)
<https://www.kavkaz-uzel.eu/blogs/378/posts/35218>(검색일: 2019년 3월 6일)

김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



동부권역 주요 동향

■ 러시아 항공운송 보조금 확대

- 유리 트루트네프 극동연방관구 대표는 2019년 2월 연례기자회견에서 극동 발전을 위해 항공운송 보조금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 날 언론인들은 ‘극동이 모스크바 및 다른 러시아 지역과의 접근성이 높아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을 했으며 유리 트루트네프는 “극동지역이 모스크바 및 다른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간주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또한 항공운송 혜택에 따라 극동지역에 변화가 있을 것이며 향후 생겨날 투자유입 등과 같은 이점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함
- 현재 러시아 총리에 의해 항공운송 보조금 확대가 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총 134개 노선에서 극동지역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추가적으로 노선이 증대될 예정임
 - 현재 항공운송 보조금으로 약 28억 루블이 할당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약 52억 루블이 예비자금으로 준비되어 있음
 -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9년에 극동지역에서 백만 명이 넘는 여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3세 이하의 청소년, 연금수령자, 장애인 등은 절반가격으로 항공권 구매가 가능하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3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유효함
 - 항공운송 보조금에 따라 항공사들은 약 78만 5,000장의 항공권을 추가로 판매 가능함
- ‘라씨야’ 항공사는 휴가철 동안 마가단~모스크바행 운항을 증편하기로 결정함
 - 올해 3월 31일부터 매일 약 30~31회로 증편할 예정인데, 현재 주 4회 운행하고 있음



- 운행 횟수가 증편됨에 따라 성수기 여객 수용력을 약 1,500석 증가시킬 예정임
- 주정부에 따르면 승객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5월에서 10월까지 운행을 주 8회 정기 항공편을 구성하고 약 450~500명의 수용력을 가진 항공기를 운행할 예정임
- 또한 '라씨야' 항공사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도입 등 기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도 향상시킬 계획임

- 시베리아항공 S7의 경우 2019년 4월 30일부터 모스크바에서 유대인 자치구 블라고벤첸스크행 항공편을 운항할 예정임
 - 4월 30일부터 한 달간 주 3회 운행되며 5월 31일부터 매일 항공편이 운행됨
 - 본 항공편에는 최저운임을 적용할 예정임
 - 여름 휴가철 동안 모스크바~블라고벤첸스크행은 주 24편 운항되며 최대 5,000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유즈노-사할린, 하바롭스크,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카, 마가단 등으로 항공편을 제공하고 있음

■ 참고자료 : <https://minvr.ru/press-center/news/21210/>(검색일: 2019년 3월 2일),
http://dvkapital.ru/regionnow/khabarovskij-kraj_08.02.2019_14032_jurij-trutnev-my-prodolzhim-razvivat-programmu-subsidirovanija-aviaperevozok-dlja-dalnevostochnikov.html,
http://dvkapital.ru/regionnow/magadanskaja-oblast_01.03.2019_14179_aviakompanija-rossija-uvelichit-chastotu-poletov-iz-magadana-v-moskvu.html(검색일: 2019년 3월 2일)

김은미 현지 리포터(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 러 극동개발부, 극동북극개발부로 부처명칭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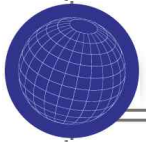
- 러시아 중앙부처인 극동개발부 명칭 변경이 확정됨
 -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극동개발부의 소관업무를 북극개발로까지 확장하는 명령서에 서명함에 따라, 부처명칭 또한 기존 '극동개발부'에서 '극동북극개발부'로 변경됨
 -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차원의 북극개발이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명령서에 의거해 연방정부의 북극지역개발 관련 법령도 곧 조정될 것으로 보임
- 극동개발부에 북극개발 업무기능이 추가 부여된 것은 1월 18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기구개편안을 건의하면서 급부상되기 시작함
 - 메드베데프 총리는 자국의 북극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북극정책을 심의·집행하는 정부기구의 필요성을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한바 있음
 -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극동개발부가 쌓은 경험 및 조직역량을 고려할 때 북극개발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강조하며 북극개발 전담조직으로 부처 내 제1차관직 신설을 푸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후문임
- 이번 부처명칭 변경과 관련해 알렉산더 코즈로프 극동개발부 장관은 극동개발부는 이미 야쿠티아, 추코트카 지역의 북극항로 개발관련 업무를 관장해왔기 때문에 그간의 경험으로 북극개발 업무를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힘
- 러시아 관할의 북극해 면적은 약 300만 평방미터 규모로 러시아 전체면적의 18%임
 - 북극해를 둘러싼 국가들 가운데 러시아는 가장 많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가장 많은 자원매장지를 확보하고 있음



■ 참고자료 : <https://minvr.ru/press-center/news/21131/>(검색일: 2018년 3월 1일)

전명수 현지 리포터(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중부권역 주요 동향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지역 개발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 수론바이 젠베크프(Sooronbay Jeenbek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지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수도 비슈케크에서 진행된 ‘지역 개발에 관한 대국민 담화’에서 외부 투자자들의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함
 - 이는 키르기스스탄 국가기관과 지방 행정당국 간에 상호작용이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역 주민들과 투자자들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 아울러 젠베크프 대통령은 외부 투자자들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다양한 혜택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지방 행정당국의 대표자들은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이익들을 남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함
 - 한편 젠베크프 대통령은 외부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 담화를 주관했으며, 이곳에는 키르기스스탄 내 모든 정부부처 및 행정기관 대표, 주요 기업의 사업가들이 참석했음
- 젠베크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의 부패 방지와 척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힘쓸 것이라고 강조함
 - “부패로부터 시민사회를 정화하지 않는다면, 키르기스스탄은 경제적 침체의 늪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기존 키르기스스탄 정치·경제 분야 부패의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함
 - 특히 사업 투자자들이 지방에서 활동을 시작하기까지 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지방 행정당국의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부재가 큰 장애가 된다고 지적함
 - 또한 무함메드칼리 아불가지예프(Mukhammedkalyi Abylgaziev) 총리는 오늘날 키르기스스탄 내 지하경제 규모가 총 경제활동 규모의 24%를 차지해, 매년 약 400억 쉼(약 5억 7,360만 달러)의 탈세가 일어난다고 밝힘
 - 키르기스스탄의 이러한 지하경제 규모를 절반정도 제거한다면 3년 안에 국민들을



위한 교육시설이나 도로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것이라고 역설함

- 향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투자자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기반시설의 확충, 지역 개발협력 방안 구축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최근 수년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지역 농산물 가공 업체에 대해서는 8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었으며 물류, 농업 협동조합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소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음
 - 작년의 경우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해 국가보증기금의 지원을 받는 ‘RSK Bank’, ‘Aiyl Bank’, ‘Russian Kyrgyz Development Fund’를 통해 약 250억 쉼(3억 5,85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사업 관련 프로젝트의 확장과 가공 산업에 절반 이상 할당되는 결과를 가져옴
 - 향후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기업의 이익 보존에 노력할 것이며, 부패 척결을 위해 서비스 제공의 디지털화를 꾀할 것임
 - 특히 IT기술의 도입은 국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정보통신 개혁을 추진할 전망이다
 -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지난 2018년을 ‘지역 개발의 해(Year of Regional Development)’로 선포했으나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은 불가능한 바,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요구됨
 - 아울러 키르기스스탄 인구의 70%가 여전히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도농격차를 줄이기 위한 농촌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지역 생산품 개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농업 협동조합 창설과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참고자료 : The Times Of Central Asia (검색일: 2019년 3월 3일)

오상호 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031-330-4145, editor405ca@gmail.com



■ 조지아 등 4개국, 새로운 카스피해-흑해 운송회랑 건설 합의

- 2019년 2월 13일 다비드 잘칼리아니(David Zalkaliani) 조지아 외무장관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새로운 카스피해-흑해 운송회랑(Caspian Sea-Black Sea Transport Corridor)를 주제로 한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음
 - 회의에는 잘칼리아니 장관을 포함해 테오도르 멜레슈카누(Teodor Meleşcanu, 루마니아) 라시드 메레도프(Raşid Meredow, 투르크메니스탄), 엘마르 메메드야로프(Elmar Məmmədیارov, 아제르바이잔) 4개국 외무장관이 참여했음
 - 조지아 외무부는 4개국 외무장관들이 “참가국들의 새로운 지역운송회랑 건설에 대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기존 터키 이스탄불 노선 외 새로운 운송 노선을 지향한 것임
 - 이미 2019년 1월 살로메 주라비쉬빌리(Salome Zur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은 2014년부터 개통된 바투미(Batumi, 조지아)-콘스탄차(Constanța, 루마니아) 항로 여객이용량 및 물동량 증가를 위한 결의를 발표한 바 있음

카스피해-흑해 운송회랑(Caspian Sea-Black Sea Transport Corridor)



자료: Kaspiyskiy Vestnik(<http://casp-geo.ru>) 2018

- 이외에도 조지아는 카스피해 연안국인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연계 협력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작년 9월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아거스 2018: 카스피해-흑해 운송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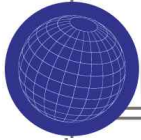
랑(Argus 2018: Caspian Sea-Black Sea Transport Corridor)’에서 조지아 측과 카자흐 측 물류운송, 에너지 사업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운송회랑 발전에 있어 조지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바 있음

- 또한 상기 4국 외무장관 회담 기간 중 조지아-투르크메니스탄 양국 장관회담 또한 별도로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새로운 운송회랑 구축 및 발전을 위한 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음

■ 참고자료 : <https://sputnik-georgia.ru/politics/20190304/244590172/Tbilisi-Baku-Ashkhabad-i-Bukharest-podpishut-deklaratsiyu-po-transportu.html> 2019(검색일: 2019년 3월 5일)

조용성 현지리포터(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58-65-06, mirinae2929@gmail.com



서부권역 주요 동향

■ 알리바바, 글로벌 시장 확대 위해 러 우정당국과 협력 추진

- 알리바바가 판매 증대 및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러시아 우정당국과 국경 간 무역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알리바바는 러시아 국경 지역 내 보관, 주문, 분류, 배송 등 일련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물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임
 - 러시아 우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양사의 협력을 통해 상품 배송시간 및 물류비용 등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고주기가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됨
- 신규 건설 예정인 물류센터는 모스크바를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입지할 예정이며, 당일 배송 추진 등을 통해 배송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예정임
 - 현재 국경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오가는 화물의 경우 약 10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해당 협약 이후 소요 시간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 및 온라인 소매업체 부족 등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소매시장 또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7년 기준 약 18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2020년에 310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온라인 소매업체 부족을 강조한 바 있음
 - 현재 러시아 전체 소매시장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부분은 겨우 3%에 불과해 소화물 운송시장의 신흥마켓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 <https://www.shine.cn/biz/tech/1902139495/>(검색일: 2019년 3월 4일)



김동환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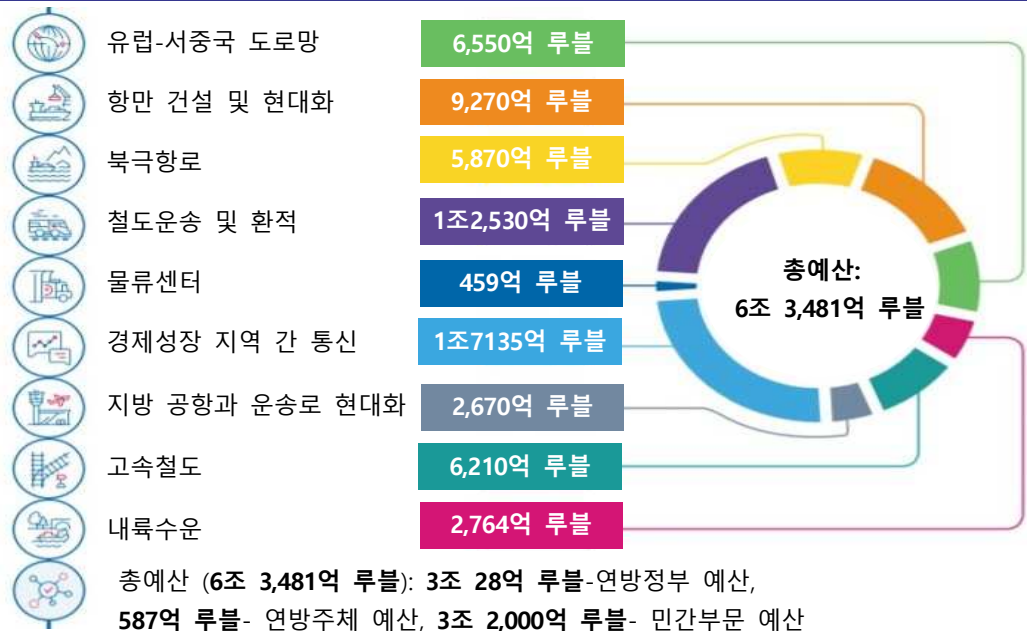
051-797-4913, kdong@kmi.re.kr



■ 러시아, 물류망 현대화에 대규모 예산 투입 예정

- 러시아가 물류 인프라 현대화 관련 예산으로 2024년까지 6조 3,481억 루블을 투입할 예정임
 - 총 출자액 중 3조 28억 루블은 연방정부 예산, 587억 루블은 연방주체 예산, 그 외에 3조 2,000억 루블은 민간 예산으로 구성됨
 - 이번 예산 편성은 정부 차원의 계획과 연방주체 차원의 계획이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예산안으로 평가되며 관련 프로젝트들의 사회 경제적 효과와 구체적인 예산 측정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됨

물류 인프라 현대화 관련 예산 할당 현황



자료: LOGIRUS, http://logirus.ru/news/infrastructure/nad_zheleznoy_dorogoy_i_morskimi_portami_-_gustil_sya_byudzheth_ozhdayutsya_milliardnye_osadki.html

- 철도 현대화 관련 예산은 1조 2,000억 루블로 편성함
 - 철도 현대화 관련 사업에 약 1조 2,000억 루블이 투입되며 이는 운송 인프라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임



- 이를 통해 6년 후 바이칼-아무르 철도(BAM)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간 화물수송량이 1억 8,200만 톤까지 늘어나고 일평균 화물 운송 거리가 440km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항만 현대화 관련 예산으로 9,270억 루블 편성됨

- 노후화된 항만의 현대화와 신규 항만 건설 관련 예산에 9,270억 루블이 편성됨
- 북극항로 관련 예산은 항만 현대화 예산과 별도로 5,875억 루블이 편성되었으며 쇄빙선 건설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됨
- 구체적으로 2019년까지 칼리닌그라드 지역의 해상 여객-화물 터미널 건설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2021년까지 북극 카라해 연안의 덕손항(port)과 파야스코예 원유매장지(Payyahskoe oilfield)의 물류 관련 시설 현대화 작업, 2022년까지 무르만스크 지역의 라브나(Lavna) 석탄터미널, 극동 하바롭스크 지역 무츠키만(bay)의 환적복합센터 건설이 마무리될 예정
- 북극해와 극동 항만 외에도 발트해, 아조프-흑해, 카스피해 연안의 98개 프로젝트에도 예산이 할당됨

■ ‘유럽-서중국’ 도로 인프라 관련 예산도 6,550억 루블 편성함

-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카자흐스탄, 중국 서부를 잇는 국제도로망 건설 프로젝트에 6,550억 루블이 편성됨
- 이를 통해 2024년까지 모스크바와 카잔을 잇는 도로망이 건설될 예정이며 두 도시 간 이동 시간이 기존 12시간에서 6시간 30분으로 약 50%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도로 및 교량을 신규 건설하는 296개의 도로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예산은 상기 예산과 별도로 편성됨



참고자료 :

LOGIRUS, http://logirus.ru/news/infrastructure/nad_zheleznoy_dor_o_goy_i_morskimi_portami_sgustilsya_byudzheta_ozhidayutsya_milliardnye_osadki.html(검색일: 2019년 02월 19일)

NEFGAZ, <https://neftegaz.ru/news/view/175357-S-minimalnymi-dorabotkami.-Odobren-kompleksnyj-plan-modernizatsii-i-rasshireniya-magistralnoy-infrastruktury-do-2024-g>(검색일: 2019년 02월 19일)

이호건 리포터(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leehkun2010@gmail.com



주요 통계

2018/2019 러시아 수역별 수산자원 생산량

(단위: 천 톤)

수역	2018년 1월~2월	2019년 1월~2월	2018/2019년 증가율
극동수역	478.6	450.5	-6%
북극해	78.9	55.4	-30%
발트해	18.4	13.0	-29%
아조프-흑해	16.7	10.8	-35%
카스피해	0.6	0.5	-16%
해외 수역 및 공해	51.4	65.7	+28%
합계	645.6	596.4	-8%

자료: <http://mcx.ru/upload/iblock/170/170b28b4e3bff5c1a5d8152a07d80bf7.doc>(검색일: 2019년3월3일)

주: 2019년 2월 18일 기준

Peter Ruzankin 연구보조원(KMI 러시아연구센터)

7-914-345-3947, aquillar7@gmail.com